



## 3고(高) 현상과 하반기 경제불안 요인

최 원 선임연구원

-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, 원화가치, 금리 3가지 거시경제지표가 동시에 오르는 3고(高)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, 2011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.
  - 2010년부터 시작된 4%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고, 원/달러 환율은 2010년 말 대비 약 80원 가까이 떨어져 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금리는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.
    -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.4%이고, 원/달러 환율은 7월 14일 기준 1,063원/달러이며, 기준금리는 6월 10일부터 3.25%로 운용되고 있음.
  - 2011년 하반기에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서비스요금, 전·월세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되어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전망이다.
  - 또한, 2011년 하반기 정부정책이 물가안정에 집중되면서 원화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,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도 높음.
-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, 원화가치, 금리의 3고(高)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, 저주가, 저소득이라는 3저(低)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함.
  - 물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위축 뿐 아니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도 나타날 수 있으며, 물가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 또한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함.
  - 한편, 원화가치 상승이 지속되면 수출기업의 해외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.
  - 주가의 경우 불확실성이 커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, 물가불안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, 미국 경제회복 둔화, 중국 긴축정책 등으로 하반기 주식시장은 하방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함.

(물가, 환율, 금리 3고 못 잡으면, 조선일보, 7/12)